

골 방 기 도

(2023-06)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모든 걸음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름 받은 자, 부르신 이의 뜻을 행할 뿐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셨던 몇 가지 소식을 나누며 골방 기도로 초청합니다.

*. 다양한 단기 선교 방문팀들 : Covid-19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며 2023년 상반기는 몇몇 단기 선교 방문팀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역자 말씀 세미나와 복음 세미나, 신반포 청년 단기팀, 솔크 음악팀, GIC 의료팀, 수원 제일감리교회와 여수영광교회의 방문 등 이 먼 곳 차드까지 찾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다양한 교육을 받았던 우리 차드 어린이들, 형제, 자매들, 사역자들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성장이 있길 기도해 봅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랑의 수고를 본국에서 또한 현장에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꺾박받는 차드 교회 소식 : 지난 5월 차드 남부 지방 몇몇 곳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그리스도인 약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여러 교회와 집들이 불태워졌는데, 그 공격을 시도한 이들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남부 반군이 아닌 이슬람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수단의 내전으로 많은 난민이 차드로 유입되었고 그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띠는 이들의 유입도 있었습니다. 차드 교단 연합에서 즉각 조사하고 정부에 대처를 요청했는데 아직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와 차드 곳곳에서 행해지는 테러 공격이 멈추어지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반군의 움직임 등이 곳곳에 있는데 사회적, 정치적 안정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벵갈라와 마사코리 :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던 마사코리에 숙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어졌고 주변은 사하라의 모래로 조금은 황량합니다. 그러나 이곳을 통해 복음으로 생명을 얻을 카넬부 형제 자매들길 기도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의 마음으로 안식처 주변으로 나무와 과실수를 심었습니다. 건조한 사막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은혜를 기대하며 꿈을 심는 마음으로 식목하였습니다. 이 안식처가 카넬왕국을 위한 영생의 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벵갈라 교회는 여수영광교회의 사랑을 힘입어 좋은 예배 처소를 건축하였습니다. 벵갈라 교회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 그 사랑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해 가길 기도합니다.

그레다이야 지역은 차드 호수와 가까운 무슬림 마을입니다. 이곳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 훈련을 받은 차드 현지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그레다이야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 다니며 신기해 하였는데 마을 리더들과 아이들이 복음에 적대적이지 않아 복음 전도의 기회가 크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 본국 사역 기간을 준비하며 : 올 하반기는 안식년으로 한국에서 보내고 본국 사역 기간 중 11월 차드에 재입국하여 4개월 정도 사역을 재개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건강검진 등 회복과 쉼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감사의 나눔이 풍성하길 기도해 봅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일터와 가정과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드 양승훈 최영주 선교사 올림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

이전보다 더 차드 사랑